

지역 소식통

정읍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 추진

정읍시가 시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방법에 나선다.

정읍시보건소(소장 손희경)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보건소에 등록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건강위험 요인으로 있는 200명에게 겸진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겸진비 지원 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백내장 등 합병증 발생빈도가 높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에게 미리 합병증 검사를 받도록 해 이로 인한 중증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항목은 △경동맥초음파검사 △미세판백노검사 △인암·인자·굴절 검사로, 보건소에서 발급한 의뢰서를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지역 내 겸진 가능한 의료기관은 내과 10개소, 안과 3개소이다.

만성질환 합병증 진장을 받은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의사 상담을 통해 결과를 안내받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6.25 참전용사 인터뷰 국방TV 방영

정읍시 유튜브 영상 '그날의 이야기' … 26일부터 예정

정읍시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기획·제작한 6.25 전쟁일 기념 인터뷰 6.25 참전용사들이 직접 들려주는, 그날의 이야기가 국방TV를 통해 전파를 탄다.

국방홍보원에서는 인터뷰의 취지와 그 활용 가치를 높게 평가해 국방TV의 SB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안내 방송(로고 활용, 26일부터 7월 종순까지 하루 1회 이상 방영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 See'에 게시된 이 인터뷰는, 대

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정읍시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정읍시보훈회관에서 진행됐다.

6.25 참전용사를 직접 만나 생생한 전시 상황과 경험담을 듣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메시지를 담았다.

시 뉴미디어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다채로운 영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

See'는 시정의 주요 소식과 정읍 9경, 시민 인터뷰 등 다양한 정보 영상을 전문 공무원이 직접 제작하고 편집해 업로드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어린이날 기념 인터뷰를 시작으로 다문화 결혼이민자, 전몰군경 미망인 등 정읍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아낸 영상 콘텐츠로 구독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앞으로 SNS 시민기자단과 유튜브 Shorts 공모전 등을 활용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 시민 소통의 창구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3년 하서 다시부흥 상권르네상스 상가작은축제(이하 상가작은축제)가 지난 23일 하서면 상가 시가지에서 개최되었다.

"더욱 발전하는 하서 만들 것"

부안 하서 다시부흥 상권르네상스 상가작은축제 성료

2023년 하서 다시부흥 상권르네상스 상가작은축제(이하 상가작은축제)가 지난 23일 하서면 상가 시가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하서면 지역 상권의 중심지인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통해 활기찬 하서 재건설을 목표로 하는 2023년 하서면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하서면은 시가지의 상가와 간판을 정비하고 가로변에 꽃박스를 설치하는 등 새단장과 함께 새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 날 행사는 시작을 알리는 해오

름풀물단의 공연과 전자현악기클 예술공연으로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데코도마 만들기, DIY 와인잔 만들기, 캐릭터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페이백, 룰렛돌리기 등을 이용해 증정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김영자 하서면장은 "하서 재단성을 기념하여 마련한 행사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하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에 건의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 캠버리를 개최한 부인의 위상과 보답을 요구하여야 한다"며 부안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서 문화도시 경제적 효과 논의 학술대회 열려

문화도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는 학술대회가 지난 23~24일 고창군 동리국악당과 신재효관소리공원에서 열렸다.

고창문화도시센터(센터장 이문식)와 시민법인한국문화경제학회(학회장 박정수) 공동 주관으로 협정, 문화도시와 경제학을 주제로 문화도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술대회다.

'골목길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모종린 교수의 기획세션 발표를 시작으로 로컬의 문화와 리아프스데이일 공존하는 문화도시와 관련된 경제학적 관점의 연구들이 논의됐다.

이번 하계학술대회에서는 △문화도시와 문화재정, △지역사회연결과 치유, △생태계 관점에서의 문화경제학,

△문화와 로컬비즈니스를 주제로 특별세션의 발표가 진행됐다.

각 주제를 중심으로 전국의 문화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학술세션, 그리고 신진연구자들의



자유주제 발표를 통해 문화도시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칭의 적이고 학술적인 토론으로 구성됐다.

고창문화도시센터는 2023 한국문화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를 고창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고창문화도시의 미래를 설계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문화경제학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자의 학술연구를 통해 고창의 치유정신을 복원하고 지역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문화경제적 성과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새만금 캠버리대회 개최지 향후 활용방안 촉구

부안군의회, 김원진 의원 발언

부안군의회 김원진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이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새만금 캠버리대회 개최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촉구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대회 이후의 개최지와 주변 부안군 관할지역의 활용 및 개발 계획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진 의원은 부안군민들이 그동안의 피해를 감내했으며,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정부 차원의 부안군 관할지역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라북도가 올해 새만금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용역을

고창군,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 열어



15명의 6.25 참전 용사들에게 위대한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기념품을 전달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겪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국기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노력하여 보훈을 더 따뜻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고창군주민자치위원회(회장 성홍재)에서 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한빛원자력본부와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에서 후원했다.

각 주제를 중심으로 전국의 문화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학술세션, 그리고 신진연구자들의

백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